

"내 월급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단 30초의 서명"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를 위한 입법청원 범시민 서명운동

“본래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기로 했지만 작업량이 워낙 많아 야근을 밥 먹듯 하는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장 수당이나 야간 수당 같은 건 전혀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일 한만큼 받고 싶지만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으니 갑갑합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서 시급을 쳐주지 않습니다.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당연히 시급을 다 받는 줄 알았는데 뒤늦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 억울합니다.”

유독 노동자들의 임금만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으로 그 명세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명세서 없이 지급된 임금이 정확히 계산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각종 명목의 수당, 법령 등에 의해 임금에서 공제한 금액 등이 정확히 기록된 ‘임금명세서’가 당연히 교부되도록 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서명은 입법청원에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